+

시



김미남 前 청와대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 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 참여 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광주・전남의 미래 경제 주력 세대가 심각한 노동력 위기 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KOSIS 행정구역 연령별 경 제활동인구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20-29세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3분기 12만명에서 2 025년 3분기 9만3천명으로 5년 새 2만7천명 (22.5%)이 감소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9만5 천명에서 10만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분 기별로 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반대로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광주・ 전남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청년층 경제활 동인구 감소세와 대조를 이뤘다. 광주는 202 0년 3분기 12만5천명에서 2025년 3분기 18만 2천명으로 5년 만에 5만7천명(45.6%)이 급 다. 증했다. 전남의 경우도 같은 기간 30만6천명 에서 37만1천명으로 6만5천명(21.2%) 증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는 다양하다. 출산율 저하로 지역 교육과 산 업 기반 축소, 고령화 심화 등으로 지역 소멸 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청년 유출은 경제활 동인구의 핵심 유출이자 단순히 광주·전남 력 위기로 연결된다.

지방의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데 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중 요한 세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산업 편중과 고용 기회 부족이다. 지방의 제조업 약화에 비해 서비스・신산업 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의 신규 일자리 창 출이 저조하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과 낮은 임금으로 인한 격차는 수도권 대학 집중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은 집값 부담이 있지만 문화·네트워크 접 근성은 지방에 비해 우위에 있다. 셋째는 생활 인프라 격차다. 교육·의료·문화 시설 도 중앙에 집중돼 지방 청년층들의 생활 만 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즉 단순 히 인구 감소 문제만이 아닌 경제·산업·사 회·문화 등 인프라와 환경 요인의 총체적 불균형이 원인이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본 다면 결국 수도권과 중앙으로 이동할 수밖 에 없어 지방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조건 을 충족하고 그에 따른 환경을 개선할 필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발생되는 문제 가 있다. 그 첫째는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다. 건실한 기업유치로 안정된 일자리와 지역산업의 활성화·맞춤형 취업 연계는 청년 경제활동인구 정착의 핵심이 다. 둘째는 주거 문제의 해결이다. 정착을 과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성장 잠재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 중 하나지만 그 동안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만큼 청년 주 거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셋 째는 의료·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청 년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의 지역 돌봄 강화와 세분화된 맞춤 지원 등 사회적 지지가 더욱더 필요하다. 넷째는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를 확충해야

최근 호남지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방 도시가 대부분 그렇듯 광주에서도 청년이 떠 둘째는 주거·문화 환경 차이다. 수도권 나고 있다. 20대(-1천300명), 30대(-631명)의 비중이 67.6%를 차지해 순유출이 가장 많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떠난 이유로는 직업, 자연환경, 교육 순으로 조사됐다. 직업과 교 육이 중요한 건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연환경 영향처럼 청년이 떠나는 곳이 아닌 볼거리와 즐거움을 찾아오는 도시가 돼 야 한다.

> 국내·외 급변하는 정세와 빠른 환경 변화 로 인해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이제 지방도 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청 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정주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경제활동인구도 증가 할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 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社說

국외 출장비 뻥튀기 광주 지방의회 부끄러운 줄 알라

광주경찰청이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광 주 동·서·광산구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5명과 서로 다른 여행사 대표 9명 등 14명을 검찰에 송 치했다. 이들은 항공료 등을 높게 책정해 비용을 부풀렸고 지출 후 남은 금액을 자부담금으로 충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도 도의회 와 16개 시·군의회에 대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 으로, 업무 담당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 20여명을 입건한 상태다. 역시 소속 의원은 쏙 빠져 단 한 명도 없다.

지방의원의 파렴치가 도마에 올랐다. 대개가 지역 경제와 자치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등의 목 적이라고 하나 실상은 관광 위주로 흥청망청했 다. 사후 보고서도 상당수가 기존 자료의 중복 또는 짜깁기 수준으로 맹탕이어서 주민들의 원 성이 자자하다. 대수롭지 않게 관계 규정을 무시 하는 등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난무하는 실 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점검한 사정이 여기에 있었고, 실제로 항공권 위·변조 등으로 경비를 과다청구한 사례가 41%를 차지 해 수사를 의뢰한 지경에 이르렀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 간 243개 지방의회가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 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자체 예산 으로 의원이 동행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1천400 건, 400억원 정도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광주경 찰 사례에서 보듯 실질적인 수혜를 입은 것은 지 방의원인데도, 이득을 보게 된 과정에 관여했다 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법망 에서 벗어났다. 본인들의 출장을 도왔던 공무원 이 처벌받을 판인데 어떠한 반성 기미도 없다. 자신은 모른다며 둘러대는 뻔뻔함의 극치라고 하겠다. 참 개탄할 일이다.

30년이 된 지방의회의 낯부끄런 현실이다. 고 질적인 병폐 중 하나로 지목된 출장비 뻥튀기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 다. 의원들 스스로 여행사를 심의해 선정하는 구 조로, 은밀하게 '짬짜미'가 횡행하고 있다. 도를 넘어선지 오래됐다. 세금을 빼돌린 명백한 범죄 다. 중앙정부도 숱하게 외유성 국외 출장을 막는 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미미하다. 법적 ·도의적 책임을 엄히 물을 수 있도록 합당한 대 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소멸위기 극복 전남 생활인구 프로젝트 성공 바란다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와 체류인구(월 1회 3시간 이상 머문 사람)를 더한 게 이른바 '생 활인구'다.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 행에 따라 국가 정책으로 도입됐으며, 2026년부 터 지자체 재정의 상당 몫을 차지하는 지방교부 세 산정에 반영한다. 전남도가 인구대전환 시즌 2로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 다. 전 국민이 두 번째 고향처럼 느끼도록 관계 인구를 넓히는 '연결', 일·쉼·체험이 공존하는 체류형 콘텐츠 확충에 중점을 둔 '유입', 지속적 으로 관계를 맺고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성장' 등 3대 전략을 수립,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선언

전남도는 생활인구 시책 우수 사례를 확산하 고 공유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9월 워크숍에서는 장흥군이 교도소 자원을 활용 한 체험·관광 공간인 빠삐용zip 사업 추진 배경 과 조성 과정 등을 설명했다. 강진군은 푸소체 험, 반값여행, 강진품애온 군민 제도를 소개해 주목받았다. 도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이끄는 또 다른 도민인 생활인구의 다 각적인 발굴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에 제시한 '월 1천만명이 머무는 활력 전남'의 비 전 또한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는 반증이다.

통계 수치에서도 2025년 3월 기준 인구감소지 역 16개 군의 생활인구는 등록인구 70만명, 체류 인구 278만명을 합해 348만명에 이르고 있다. 인 구 줄어들면서 소멸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수도 권과 비수도권과의 인구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 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활인구 개념 을 강조하고 있다. 정주인구 외에 통학과 통근, 관광 등을 목적으로 체류인구까지 챙겨 지원하 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남의 경우 는 물론 관광과 외국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편으로 생활인구에 일조하고 있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며, 농어촌 활력을 증진한다면 증가 폭은 더욱 가파 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구가 곧 경쟁력인 시대다. 전남도는 월 1천 만명 기준 연간 15조원 규모의 지역 내 소비를 낙관하고 있다. 유출은 막고 유입을 늘려야 한 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 때다. 사 람이 모이는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의 성공 을 바란다.

의료칼럼



곽 희 호 목포청연한방병원장

많이 걷거나 뛰게 되면 자연스레 하지의 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발뒤꿈치가 붓거 나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땐 '아킬레스 건염'을의심할수있다.

아킬레스건이란? 장딴지에있는 비복근과 족저근, 가자미근의 근육들이 한 갈래로 합 쳐져서 발뒤꿈에 이어지는 힘줄이다. 사람이 건거나 달릴 수 있게 기능을 하고 안정성을 더해주는 구조물로 몸에서 가장 단단한 힘줄 로 꼽힌다.

하지만 견고한 구조라하더라도 반복적인 사용과 잘못된 자세로 인해 힘줄에 마찰이 생겨 미세한 공간에 균열이 발생하면 염증이 나타나게 된다. 손상부위는 아킬레스건의 내 ·외측이나 건골막접합부에 호발한다.

아킬레스 건염의 증상은 움직임 시 발뒤꿈 치에서 종아리에 이르는 부위에 통증이 나타 난다. 특히 발꿈치를 드는 동작이 불편하다. 염증이 악화되면 휴식시에도 통증이 나타나 며 부종, 열감이 보일 수 있다. 건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만성화되거나 심한 경우 아킬 레스건이 파열되면 보행이 불가할 정도에 이 를수있다.

진단은 병력청취와 이학적 검사, 영상 검 사로 나뉜다. 병력청취는 환자의 통증 부위

발 뒤꿈치가 아픈 '아킬레스 건염'

와 양상을 파악해 질환을 의심하는 것이다. 발뒤꿈치에서 종아리에 이르는 통증을 호소 하며 하지를 과사용한 과거력이 있다면 일차 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sign 검사와 파열을 진단하는 Thompson test 검사가 있다. Creak sign 검사는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검사자가 한 손으로 아킬레스건을 촉진하며 다른 한 손으로 발을 잡아 발바닥 쪽과 발등쪽으로 발을 움직여보는 방법으로, 이 때 아킬레스건에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다 면 아킬레스 건염으로 볼 수 있다. Thompson test 검사는 환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검사자 가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손으로 꽉 움켜쥐어보는 방법으로, 이 때 발이 발등쪽 으로 저절로 움직여야 정상이다. 만약 발의 움직임이 없다면 아킬레스건의 파열을 의심 할수있다.

영상검사는 초음파와 MRI를 주로 활용한 다. 아킬레스건의 염증, 부종, 파열 등을 자세 하게 확인해 질환을 확진할 수 있는 장점이

힘줄은 혈액순환이 저조한 구조물이므 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재발이 잦다. 아킬레스 건염도 마찬가지로 2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와 꾸준한 생활관리가 필요하 다. 양방치료는 약물치료와 체외충격파 치 료, 한방치료는 침구치료와 한약치료를 시 술한다. 아킬레스 건염처럼 고질적인 질환 은 한방과 양방의 통합치료가 훨씬 효과적

약물치료는 진통소염제와 근이완제를 주 로 처방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통증완화의 효과만 가지므로 단기간은 사용 하지만 장기간 복용은 추천되지 않는다. 체 외충격파 치료는 아킬레스건 부위에 치료적 인 충격파 에너지를 가해 손상된 세포들을 이학적 검사로는 건염을 진단하는 Creak 자극해 혈류순환을 촉진하고, 신경섬유를 자 극해 통증을 느끼는 역치를 올려 염증과 통 증을 줄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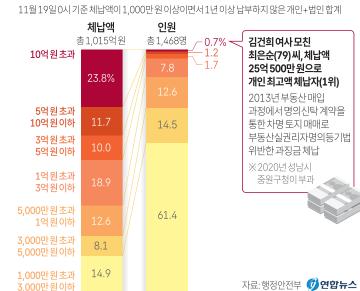
> 침구치료는 통처가 있는 아킬레스건에 직접 시술하여 혈액순환을 도모하고 염증 통증을 완화해준다. 발의 안쪽 복사뼈에서 아킬레스건쪽 방향으로 1-2cm 뒤에 움푹 파인 곳에 위치한 대종(大鍾)혈,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었을 때 근육이 갈라지는 지점의 정중앙에 위치한 승산(承山)혈에 호침이나 약침을 시술한다. 사혈요법과 부 항요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효과적이 다. 한약치료는 어혈을 풀어 통증을 줄여 주고, 면역력을 강화해 염증이 생기지 않 도록 해준다.

> 생활관리는 아킬레스건이 무리하지 않도 록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 아킬레스건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 도 좋다. 집에서 따라하기 쉬운 수건을 이용 한 스트레칭을 소개한다. 환자는 다리를 쭉 펴고 바닥에 앉고 환측 다리의 발바닥에 수 건을 두르고 양손으로 잡아 머리 방향으로 당기면 된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최대 범위로 시행하며, 하루에 5-10회를 해주 면된다.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의 이름 에서 아킬레스건이 이름지어졌듯이, 아킬레 스가 다쳐 나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 하길 바란다.

그래픽 뉴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 비중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 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 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 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 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 원은 전년보다 3.4% 증가 했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 모는 개인 5천829명, 2천96 5억9천100만원, 법인 3천32 4곳, 2천311억1천800만원

등 총 5천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5천100만원을 내지 않 은 경기도 최모(56) 씨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583억9천300만원, 법인 430억7천700만원 등 총 1천14억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79) 씨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독자투고

최근 한국인을 상대로 한 캄보디아, 미얀 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고수익 알바, 단 기 취업을 미끼로 취업 사기가 급증하며 국 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주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새로운 기 회를 찾아 해외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중 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생각보다 지 나치게 좋은 조건이 사실은 잔혹한 범죄 조 직의 덫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들의 광고 수법은 젊은 층들을 유혹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월 천 만 원 보장, 경력 무관 전액 지원 등 비정상적 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는 100%

해외 '고수익 알바' 취업 사기 덫이다

주의해야할 경계 1순위이다.

이러한 광고를 믿고 현지에 도착하는 순 간, 구직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감금된 채, 몸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등 불법 행위에 강제로 동원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취업 사기를 넘어 인신매매와 조직적인 범죄 연루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

단 한 순간의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피 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지극히 비 현실적이거나 고수익을 유혹하는 광고는 의

심하고 채용 기업 및 공고의 신뢰도를 철저 하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 취업 사기의 덫은 국제적인 범죄 조 직이 치밀하게 설계한 구조로 모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를 지키는 힘, 즉 개인 의 신중함과 경계심이 바로 최고의 안전망이 된다. 모두의 안전한 해외 활동을 위해 모든 의심스러운 순간에 멈추어 서서 안전한지를 반드시확인해야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

※ 독자투고를기다립니다.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1991년 11월 1일 창간

업 무 http://www.kjdaily.com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30 사 진 650-2080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경영지원국 650-2006 650-2011 사 업 본 부 사회부 650-2040 T V 본 650-2009 650-2007 축 650-2020

786-9488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 (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